

기후 재정과 신뢰

헬라 쉬흐로흐(GCF 사무총장)

다음 12 달 동안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두 가지 중요 이슈가 있다. 바로 기후 재정과 신뢰이다. 기후 재정에 대한 추가 공약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충실한 협력을 위해 필요한 신뢰를 형성하고, 성공적인 협상이 실효적인 국제기후협정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기후 재정이 2015 년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도 아닐 것이다. 녹색기후기금(GCF)은 바로 그러한 글로벌 기후 재정과 투자를 풀어 기후변화 감축과 적응에 모두 쓰이도록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세계 기후변화 협상에 있어 결정적이며, GCF 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 도씨 내로 제한하려는 목표를 지지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기후 재정은 아주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이미 성장하고 있어, 신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액은 2005 년 800 억 달러에서 2014 년 2,400 억 달러를 갓 상회할 정도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더욱 대규모의 투자를 촉발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는 특히 개도국에게 필요하다. 또한 선진국은 개도국에 대한 양허성 기후재원이 매년 상당한 액수가 되어야 할 것임을 공언한 바 있다.

이러한 모든 기후 재정지원은 GCF 가 혁신적인 자금조달 모델 및 신기술 보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저탄소 기후 회복력 있는 발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뒷받침 할 것이다. GCF 는 또한 기후변화 적응 프로젝트 재원의 50%를 기후변화의 파괴적 영향에 가장 취약한 군소도서국, 최저개발국, 아프리카 국가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GCF 는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의 기후재정 흐름을 촉진할 것이다. 이러한 재정 흐름은 선진국에서 출발하지만, 민간 투자로부터도 나올 것이며, GCF 의 가장 혁신적인 요소 중 하나가 바로 GCF 내 민간부문기구(PSF)를 통한 민간 부문 기후 투자 활성화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PSF 는 투자 장벽을 식별하여 극복하는 것을 도와 민간 자본이 변혁적인 변화를 추동 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GCF 는 선진국으로부터의 양허성 공적 자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추가 공여의 문은 계속 열려있다. 그러한 공약들을 통해 조성된 재원은 GCF 가 2015 년 초 개도국으로부터 자금조달 요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GCF 에 대한 지지를 이미 표명한 국가들이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다. 다른 국가들도 자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 및 자국경제를 고려한 역량에 상응하는 지원규모로 GCF 를 지지를 할 준비를 갖추나가고 있다. COP21 이 2015 년 말 파리에서 개최될 즈음이면 아직 공여에 나서지 않은 국가들도 GCF 에 대한 자금 공여를 선언했으리라 확신한다.

신뢰 구축

물론 GCF 는 기후재정이라는 퍼즐의 한 조각이다. 야심차고 진보적인 국가 전략과 함께 깨어있는 투자자와 은행가, 또 다양한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UNFCCC 당사국 간의 정치적 조화(harmony)가 필요하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올 해 기후 변화 어젠다의 두 번째 중요한 이슈는 국가간의 신뢰 형성 방안이 될 것이다. 신뢰는 우리가 서로의 이견을 넘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야심찬 국제 협정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상황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은 쉽다. 여기저기 장애물과 후퇴도 보이고, 개도국은 기후변화라는 글로벌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모두가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공정성은 신뢰의 필수조건이라고 여기고 있다.

하지만 나는 글로벌 협정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낙관은 바로 GCF 이사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GCF 는 UNFCCC 재정 메커니즘의 운영 기구로서 설립되었다. 더 간단히 말하자면, GCF 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공동 노력의 결실이다. 이사회도 선진국과 개도국이 동일 수로 대표되고 있다. GCF 의 구조, 우선순위의 균형, 원칙, 접근방식, 운영 체계에 관한 규칙 등 어려운 협상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해수면 상승으로 위기에 처한 군소도서국에서부터 경제 규모가 큰 선진국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요구사항을 균형 있게 다뤄야만 했다. 그리고 어렵게 얻은 합의를 통해서만 진전이 가능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초기재원조성과 운영을 개시하기 위해 필요했던 모든 필수 요소들은 합의되었다. 따라서 GCF 는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지지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국가들이 모여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국제 협력을 통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이기도 하다.

추가 공여의 필요성

기후변화의 위협에서 세계를 구할 수 있는 야심찬 협정으로 파리 COP21이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우리가 무에서부터 새로운 금융 기관이 탄생하도록 합의를 달성했다는 점이다.

한편, GCF는 추가 공여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간에 더 큰 신뢰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기후재정과 신뢰. 이 두 가지는 서로 분리할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기후 재정에 대한 공약은 국제 협정을 위해 우리가 필요한 신뢰를 형성하게 해 줄 것이다.

출처 = http://www.climateactionprogramme.org/climate-leader-papers/climate_finance_and_trust